



4면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 첫 발

전주매일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음 10월 22일) 제29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강화된 방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위험도 낮춘다

전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 중심 기본계획 수립 송 지사, 제4차 지원위 참석 "방역수준 재강화 불가피 취약분야 선별 방역대책 적용 절충안 마련 필요" 역설

송하진 전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5일 개최된 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상황점검 및 평가현황(11월 3주차)을 논의하고,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검토 등 당면 현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도는 전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해 방역·의료·복지·문화·체육·관광 중심의 일상회복과 소비 생산·고용 등 경제활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도는 방역과 '일상회복'이라는 방향성이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3개분과 9개기관 50여명의 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거리두기 체계개편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관광 정상화로 정서적 치유를 통한 일상회복을 강화,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골목상권 단계적 정상화, ▲중소기업 지

원 및 수출 대변화 ▲둔든한 취업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 7대 아젠다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고, 역학조사관 확대, 감염병 관리과 신설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정책과 전국유일의 해외입국자 수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유입원천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 80%가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위험도는 '중간'을 나타내고 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전체 1,746억원 규모로 지급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27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72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폭은 3.5로, 전국평균 하락폭인 7.1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비 심리위축의 완충제 역할을 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 7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북도는 역학조사관 확대, 감염병 관리과 신설, 재택치료관리팀 구성, 위중·중등증 치료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공항 해외입국자를 수송해 지역사회 내 감염 유입원천을 차단하고, 매주 시·군·경찰 등과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약 6만 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협회·단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도민 실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에 표창하는 등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는 향후 부스터샷, 청소년 접종, 요양시설 등 추가접종 추진과 지속적으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해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목련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감염자 수와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를 보면 방역수준의 재강화가 불가피하며, '위드코로나' 이후 부스터샷의 신속 추진으로 안정세를 회복중인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적용해 취약분야에 선별적으로 비상계획 수준의 방역대책을 적용하는 절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5일 국회를 찾은 송하진 도지사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막판 집중 공략

송하진 도지사, 민주 송영길 대표 등 찾아 현안 전폭 지원 요청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핵심인사에게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는 막판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주는 지난주 예결소위 감액심사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와 마지막 예결소위의 증액심사가 동시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일 도 지휘부의 예산확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송하진 지사가 국회를 재차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내년 전북도 핵심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했다.

또 기재부 안도걸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증액 필요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에 게 올해 정부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해온 분야별 최우선 핵심사업 10여 건을 선정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변경을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내년 정부예산 전북도 반영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핵심사업으로 '전리유학진흥원 건립'과 '탄소섬유활용 수소저장용기 사업인증 플랫폼 구축', '채반금 재생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도 사업 예산변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구하고, 내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물플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전북도의 농식품·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업 5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정치권 및 도·시·군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수용의견이나 수 있도록 기재부 실무도 지속·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

선유도 말도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일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인증을 받으면 전북도는 기존의 해안형(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형 지질공원을 갖추며, 명실공히 생태관광 브랜드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의 국가 인증을 위해 인증 필수조건 확충과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을

해안형·산악형·도서형 갖춘 생태관광 '눈앞'

고군산군도 일원 국가지질공원 인증 진행 '순조'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21개의 인증 필수조건 중 탐방객 안내소 선정,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등 총 12개 항목을 확충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성인 등 계층별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 나머지 인증 필수조건 확충을 마치고, 국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진안·무주에 이어 도내 세 번째 국가 인증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의 면적은 176.36㎢로 선유도 말도

광대도 등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해안형(전북 서해안권), 산악형(진안·무주)에 이은 도서(島嶼)형 지질공원이 탄생함에 따라, 전북도 생태관광 브랜드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2년 인증 확

득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서해안 생태관광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탐방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질명소 인근 마을 관광 분야 민간기관·업체 등과 협력 사업 등을 발굴해 고군산군도 생태·지질탐방 활성화와 지역 소득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청암산 생태관광지, 전북 1000리길)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탐방 자원의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 이후에는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수행해 신규 지질명소 발굴과 국제적 가치 규명을 통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여부도 검토한다. 하진 도 환경복지국장은 "생태문명 사회로의 상급적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김제수산업협동조합



해가람은 海 바다 '해'와 강이라는 순우리말 '가람'의 결합어로 전북에서 난 건강한 수산물을 뜻합니다.

부안수협 군산시수협 고창군수협 바다의향기 공소향사람들 금영수산물 진서젓갈식품 양지영어조합법인 청정바다정갈 (유)바다향 화우당 (주)아리울수산 (유)엘게이씨푸드 (주)진성식품 (유)기룡냉면 칠보수산에스푸드 수경수산 바른수산 하진바지락영어조합법인 하진수산영어조합법인 지성양만 석현수산 해맑은수산물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해가람 쇼핑몰이 12월에 오픈합니다

